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 중심으로

최은희*, 남은우**†, 이봉희***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공중보건학과*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보건행정학과**

강원발전연구원 연구II본부 전시·회의·관광분야***

<Abstract>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Health Tourism of Gangwon Province

Eun-Hee Choe*, Eun-Woo Nam**†, Bong-Hee Lee***

*School of Public Health, Griffith University, Brisbane, Australia**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College of Health Sciences, Yonsei
University, Wonju, Korea***

*Socio-Cultural and Tourism Policy Research Division, Gangwon Development
Institute, Korea****

This study attempted to develop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customized health tourism programs of Gangwon province. The data was collected by telephone surveys for 500 citizens in a metropolitan and regional cities in Korea in 2009. In conclusion, the province has many advantages to develop health tourism industries because the image of Gangwon health tour was represented to be generally positive and more than 65% of respondents we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health tourism of the province. The respondents also considered that the purpose of the tour is for relaxation rather than medical

* 투고일자 : 2010년 12월 13일, 수정일자 : 2011년 2월 18일, 게재확정일자 : 2011년 3월 13일

† 교신저자 : 남은우, 강원도 원주시 대학로 1,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우 : 220-710)

전화번호 : 033-760-2413, fax : 033-762-9562, E-mail : ewnam@yonsei.ac.kr

treatments. However, it requires flexible seasonal employment, scientific investigations of the natural environmental treatments and conne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also need to collaborated with health and hospital services.

Keywords : Gangwon province, Health tourism, Natural therapy, Atopy pati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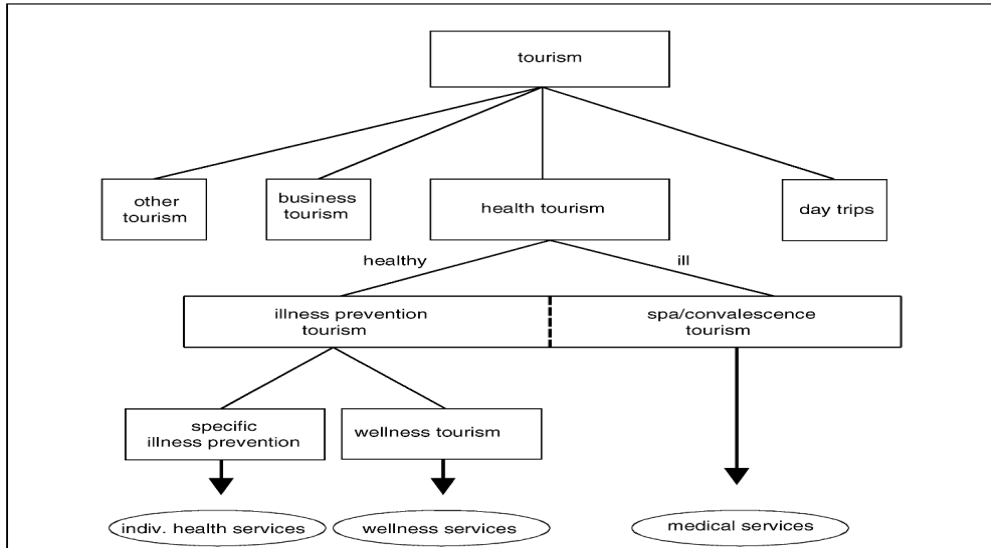
I. 서 론

의료관광은 보건 서비스와 관광이 접목된 형태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인정받으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관광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저렴한 의료비와 첨단 의료기술은 외국인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의료관광은 외국 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내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좋은 관광 테마가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도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비만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하여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는 국내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

의료관광은 Health Tourism, Wellness Tourism, Medical Tourism 등으로 불리며 아직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았다. 의료관광에 대한 정의도 다양한데, Goodrich(1987)는 의료관광을 건강 관련 시설에 대한 의도적인 홍보로 관광객들이 유인되는 목적지나 관광지라 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정의하였고, Hall(1992)은 건강 관련 동기로 인한 관광으로 정의 하였다. 또한 Medilik(1996)은 의료관광을 건강리조트와 질병 치료에서 휴양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써, 이동하여 치료 받는 여행이라 하였다. Mueller와 Kaufmann(2001)은 의료관광을 수요의 입장에서 정의하였는데, 의료관광을 관광의 한 분야로 보고 건강인과 환자로 나누어 그에 맞는 관광의 형태를 제시하였다(그림 1).

건강한 사람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관광 기회를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려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광 자원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방문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이 앓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방문하게 된다. 또한 환자의 경우는 질병 치료 외에 스파와 같은 요양관광을 즐기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관광은 건강인과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건강관련 동기를 갖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건강증진 및 질병 치료관련 서비스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말한다.



<그림 1> 의료관광의 정의(Mueller & Kaufmann, 2001)

연구 대상지역인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 의료관광객 수는 2008년 현재 33.5만명~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강원광역경제권 의료관광객 수는 약 15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09). 강원도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보건의료기관(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보건기관, 약국)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하여 부족한 편이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은 서울 및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45% 이상 분포되어 있고,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가 강원도는 150.8명으로 전국이 166.8명인데 비하여 적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덧붙여, 타시도의 경쟁적 투자 및 계절적인 기복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동해안에 접해 있고, 대관령 고원지대와 산맥, 강 등 다양한 지형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2009년 한국관광공사에 의하면, 2008년 강원도는 국내여행 관광객의 비용 총량이 국내여행 전체 비용의 13.8%로 가장 많고, 강원도의 국내 관광객 수는 약 2천만명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2011년 법정 지정 관광지는 42개소이고 온천장은 총 48개소로 전국의 11.9%, 자연휴양림은 22개소로 전국의 5.2%를 차지한다(관광지식정보시스템). 또한 강원도는 2009년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의료관광이 선정되어, 이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투자가 예상되며 경춘고속도로 개통 및 동북아 관광노선(양양국제공항, 동해안크루즈)을 개선함에 따라 접근성의 향상도 기대된다. 이러한 강원도의 의료관광 잠재력을 살펴보았을 때, 강원도는 의료관광을 환자의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증진과 치유의 개념이 있는 웰니스(Wellness)관광의 형태로 확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외에서는 자연환경 및 요가·명상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독일의 경우, 산림치유의 선두주자로서 200년의 기후요법을 토대로 지형 요법과 자연 건강 조양법등을 이용하여 이미 산림 치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세천 외, 2008). 특히, 바트 뷔리스호펜 시의 산림 휴양지가 대표적인데 질병에 따른 산책 코스와 운동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지경배, 2008). 일본의 경우 1985년 후생성에서 요양·보양·휴양의 의미를 포괄하는 보양온천시설을 활성화하고 있어, 휴양과 레저용으로 국한되는 우리나라의 온천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치료의 개념을 갖고 있다(김인순 외, 2005). 또한 인도는 명상과 요가의 기원지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체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 프로그램 및 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국립자연휴양관리소에서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아토피 그린캠프(아시아경제, 2010.5.5)를 개최하였고, 제주에서는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제주의소리, 2010.2.23). 특히 강원도의 경우, 동해안 일대의 도시들은 해양심층수 및 온천사업의 개발이 한창이다. 고성군의 경우, 해양심층수 축제 및 박물관 등의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심층수 전용농공단지, 과학관, 수산자원센터의 개발 및 해양심층수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브랜드 육성을 꾀하고 있다(고성해양심층수, www.thalassotherapy.kr). 또한 강릉시도 금진온천(금진온천, www.kurehouse.com) 등 온천 및 수치료를 개발하고 있다. 덧붙여 산림자원이 풍부한 내륙의 경우, 횡성군은 숲체원(숲체원, www.soop21.kr)을 바탕으로 산림치유 및 숲체험을 도모하고 있고, 양구군에서도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와 협력하여 아토피친환경체험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의료원과 관학 협력 차원에서 연세-양구 아토피 클리닉을 설립하여 국내 환자 및 외국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양구군, 2009). 또한 강원도 홍천군의 힐리언스 선마을은 해발 250m 고지에 설립되어, 다양한 트레킹 코스, 스파, 명상 및 식이요법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힐리언스 선마을, www.healience.com).

본 연구는 강원도 지역의 수요자 중심의 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시설 운영자의 사업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지역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 대도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주)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표본 추출로 500명(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5.66)을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연구진이 개발한 설문지를 자치단체의 의료관광 담당자 3인에게 사전 조사를 통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사회조사 전문조사기관의 면접원에 의한 전화설문조사 방식에 의하였다.

설문조사시 면접원은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¹⁾을 간략히 설명한 후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도 및 강원도 방문의향,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이하 '치유관광') 방문목적 및 방문형태, 치유관광 선호시설 및 선호치유요법, 치유관광 방문시 지불의사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설문조사는 20대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응답자는 남자 246명(49.2%), 여자 254명(50.8%)이었다. 거주지는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359명, 71.8%)과 그 밖의 광역 대도시인 비수도권(141명, 28.2%)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경기와 서울이 각각 163명(32.6%), 157명(3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이 55명(11.0%)으로 많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205명(41.0%)이었으며, 다음으로 대졸이

^{주1)}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이란 '숲, 휴양림, 해변과 같은 물 맑고 공기 좋은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에 지친 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충전 활동과 아토피 환자나 천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자연치유요법을 활용한 건강증진을 위한 관광활동'이라 한다 (저자 임의 정의).

195명(39.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경제적 수준은 월평균 가계 소득이 300-500만원인 응답자가 261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0-300만원이라는 응답이 156명(31.2%)으로 많았다. 응답자의 직업은 회사원(공무원)인 경우가 247명(49.4%)으로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주부가 133명(26.6%), 자영업 54명(10.8%) 순이었다(표 1).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N=500(100.0%)

구 분		명	%	구 분		명	%	
성별	남자	246	49.2	거주지역	수도권	서울	157	31.4
	여자	254	50.8			인천	39	7.8
연령	20대	110	22.0			경기	163	32.6
	30대	114	22.8		5대 광역시	부산	55	11.0
	40대	113	22.6			대구	37	7.4
	50대	78	15.6			광주	18	3.6
	60대 이상	85	17.0			대전	21	4.2
직업	학생	45	9.0		학력	전주	10	2.0
	회사원(공무원)	247	49.4			중졸이하	25	5.0
	주부	133	26.6			고졸	205	41.0
	자영업	54	10.8	전문대졸		68	13.6	
	기타	21	4.2	대졸		195	39.0	
가족소득	100만원 미만	7	1.4	대학원이상		7	1.4	
	100-300만원	156	31.2					
	300-500만원	261	52.2					
	500-1000만원	72	14.4					
	1000만원 이상	4	0.8					

주관적 건강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100점 만점 중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79.8점이 평균으로 나와 비교적 양호한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였다. '90점 이상'이라는 응답이 185명(37.0%)인 반면, '60점 이하'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5명(11.0%)이었다. 건강상태가 중간정도인 61점에서 89점 까지라고 답한 응답자는 260명으로 52.0%에 달했다. 지병 유무에 대한 응답으로는 233명(46.6%)이 지병을 앓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병의 종류로는 고혈압이 129명(4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지혈증이 43명(16.6%), 비만이 39명(15.1%)이었다. 지병의 80%정도가 생활습관질환으로 조사되었고, 환경성질환인 아토피와 천식은 10.1%였다. 지병 유무에 대한 응답에서 지병이 '있다'는 응답이 233명이었으나,

지병의 종류를 묻는 응답에서는 총 259의 빈도를 나타냄에 따라 26명(11.16%)은 2가지 이상의 합병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2).

<표 2> 건강수준

구 분	명	%
건강상태(100점 만점 평가)		
상(90이상)	185	37.0
중(61-89미만)	260	52.0
하(60이하)	55	11.0
계	500	100.0
지병 유무		
없다	267	53.4
있다	233	46.6
계	500	100.0
지병 종류		
고혈압	129	49.8
고지혈증	43	16.6
아토피	17	6.6
천식	9	3.5
비만	39	15.1
기타	22	8.5
계	259	100.0

2.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에 대한 관심도 및 강원도 방문의향

치유관광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 434명(86.8%)이 잘 알고 있거나 들어 본 적이 있었고, 66명(13.2%)만이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냐는 질문에 관심도가 매우 높거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36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2.6%에 해당했다. 반면, 관심도가 낮거나 매우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51명(10.2%)이었고, ‘그저 그럴 것이다’라는 응답은 86명(17.2%)이었다. 사회적으로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라는 용어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치유관광 하면 떠오르는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28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2%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제주도가 114명(22.8%)였다. 강원도 치유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방문하고 싶다’ 또는 ‘방문하고 싶다’는 응답이 326명(65.3%)이라

최은희 외 :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 중심으로

고 응답하였다. 반면, ‘방문하고 싶지 않다’ 또는 ‘전혀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47명(9.4%)였다(표 3).

〈표 3〉 n치유관광에 대한 인식 및 관심

구 분	명	%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에 대한 인지도		
들어본 적이 있고 잘 알고 있다	104	20.8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 본 적은 있다	330	66.0
들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다	66	13.2
계	500	100.0
치유관광에 대한 관심도		
관심도가 매우 높을 것이다	77	15.4
관심도가 있을 것이다	286	57.2
그저 그럴 것이다	86	17.2
관심도가 낮을 것이다	49	9.8
관심도가 매우 낮을 것이다	2	.4
계	500	100.0
치유관광의 이미지와 밀접한 지역		
수도권	9	1.8
강원도	281	56.2
제주도	114	22.8
충청도	8	1.6
경상도	67	13.4
전라도	21	4.2
계	500	100.0
강원도 치유관광 프로그램 방문 의향		
매우 방문하고 싶다	40	8.0
방문하고 싶다	286	57.3
그저 그럴다	126	25.3
방문하고 싶지 않다	45	9.0
전혀 방문하고 싶지 않다	2	0.4
계	499	100.0

3. 치유관광 방문목적 및 방문형태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참여 목적은 산림산책 등 레저라는 응답이 19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트레스 해소 등 재충전이 156명(31.2%), 비만 등 성인병질환 치유가 74명(14.8%)이었다. 치유관광 프로그램 참여시 머무를 기간에 대하여 2-3

일이라는 응답이 283명(5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7일이라는 응답이 109명(21.8%)로 많았다. 10일 이상 장기간 머무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11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2.2%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단기간 휴가 중심의 여행시스템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직장인들의 2-3일간의 주말이나 4-7일 정도의 여름휴가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치유관광 참여시 원하는 방문 계절은 가을(243명, 48.6%), 봄(107명, 21.4%), 여름(99명, 19.8%), 겨울(51명, 10.2%)순이었다. 방문할 때 원하는 동행인으로는 가족이라는 응답이 389명(77.8%)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연인이라는 응답이 79명(15.8%)이었다(표 4).

<표 4> 방문목적 및 방문형태

구 분	명	%
치유관광 방문목적 및 방문형태		
스트레스 해소 등 재충전	156	31.2
피부미용 등 노화방지	33	6.6
비만 등 성인병질환 치유	74	14.8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 치유	38	7.6
산림산책 등 레저	192	38.4
암 치료 후 요양	7	1.4
계	500	100.0
치유관광 방문기간		
당일 방문	56	11.2
2-3일	283	56.6
4-7일	109	21.8
7-10일	41	8.2
10일 이상	11	2.2
계	500	100.0
치유관광 방문계절		
봄	107	21.4
여름	99	19.8
가을	243	48.6
겨울	51	10.2
계	500	100.0
방문시 원하는 동행자		
혼자	22	4.4
가족 동반	389	77.8
친구 연인	79	15.8
각종단체	10	2.0
계	500	100.0

4. 치유관광 선호시설 및 선호치유요법

치유관광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는 것은 ‘확실한 치유효과’라는 응답이 274명(54.8%)으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레저시설 및 관광지와의 연계성’은 89명(17.8%),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은 52명(10.4%)이 응답하였다. 즉, 시설이나 음식 등 하드웨어적인 것 보다는 치유효과나 프로그램 구성에 더 중요도를 두는 경향을 보였다. 치유관광 프로그램에서 2순위로 주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레저시설 및 관광지와의 연계성’(121명, 25.4%)과 ‘접근용이성’(120명, 25.2%)이 가장 많았다. ‘레저시설 및 관광지와의 연계성’은 치유관광프로그램의 주요 고려대상의 1순위와 2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각각 두 번째, 첫 번째로 많아 그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표 5).

〈표 5〉 치유관광 주요 고려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명	%	N	%
치유관광프로그램에서 주요 고려사항				
확실한 치유효과	274	54.8	30	6.3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52	10.4	80	16.8
다양한 치유시설	34	6.8	71	14.9
다양한 음식	18	3.6	54	11.3
레저시설 및 관광지와의 연계성	89	17.8	121	25.4
접근 용이성	32	6.4	120	25.2
기타	1	.2	.	.
계	500	100.0	476	100.0

치유관광 중 이용하고 싶은 시설은 스파시설(195명, 25.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황토, 나무칩 등 맨발지압로(177명, 23.1%)와 치유산책로(171명, 22.3%)라는 응답이 많았다. 참여하고 싶은 치유관광 프로그램으로는 온천요법(243명, 34.2%)과 산림요법(224명, 31.5%)이 가장 많았다. 치유관광 프로그램 체험시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태백이나 정선 등 고원지역이 198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해안 지역을 선택한 응답자가 172명(34.4%)이었다. 즉, 치유관광 프로그램 선호 지역은 동해안지역과 고원지역을 선호하고 있었다(표 6).

<표 6> 치유관광 선호시설 및 선호치유요법

구 분	명	%
치유관광 중 이용하고 싶은 시설		
스파 시설	195	25.5
황토, 나무칩 등 맨발지압로	177	23.1
피부미용	40	5.2
치유산책로	171	22.3
의료건강관리시설	24	3.1
치유단지내 숙박시설	93	12.1
펜션 등 치유단지주변 숙박시설	63	8.2
건강검진	3	0.4
계	500	100.0
참여하고 싶은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동걷기요법	49	6.9
요가명상요법	71	10.0
해양심층수 음용요법	60	8.4
온천 요법	243	34.2
유기농 음식요법	64	9.0
산림요법	224	31.5
계	711	100.0
치유관광 프로그램 선호지역		
동해안 지역	172	34.4
태백 정선 등 고원지역	198	39.6
춘천호수권 지역	83	16.6
원주치악권 지역	47	9.4
계	500	100.0

5. 치유관광 방문시 지불의사

강원도내 유료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시 방문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지불할 의사가 있거나 시설과 프로그램이 만족하면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453명(90.6%)이 응답하였다. 1박의 숙박비와 3식 식비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5만원 미만이 252명(50.4%), 5-9만원이 229명(45.8%)이었다. 치유관광 프로그램 1회 체험 참가비의 지불가격에 대하여는 207명(41.4%)이 3-4만원, 203명(40.8%)이 1-2만원이라고 응답하였다. 1회당 건강상담 비용 및 자연치유사의 가이드 비용에 대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 3-4만원이 207명(41.4%), 1-2만원이 204명(40.8%)으로 저렴한 가격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표 7).

<표 7> 치유관광 방문시 지불의사

구 분	명	%
강원도내 유료 치유관광 프로그램 운영시 지불의사		
있다	93	18.6
시설과 프로그램이 만족하면 지불할 의사가 있다	360	72.0
없다	47	9.4
계	500	100.0
숙박비(1박) 및 식비(3식)		
5만원 미만	252	50.4
5-9만원	229	45.8
10-19만원	18	3.6
20-29만원	1	0.2
계	500	100.0
치유관광 프로그램 체험 참가비에 대한 지불		
1-2만원	204	40.8
3-4만원	207	41.4
5-6만원	63	12.6
7-8만원	12	2.4
9-10만원	11	2.2
11만원 이상	3	0.6
계	500	100.0
1회당 건강상담 비용 및 자연치유사에 드는 가이드 비용에 대한 지불		
1만원 이하	235	47.0
2-3만원	217	43.4
4-5만원	44	8.8
6만원 이상	4	0.8
계	500	100.0

IV. 고 찰

본 연구는 강원도지역의 치유관광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5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전화 인터뷰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강원 광역경제권 의료관광산업은 치유관광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원도 지역 의료자원이 비록 수도권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풍부한 자연자원과 깨끗한 자연환경이 있다는 강점을 살려 자연치유관광 형태의 의료관광사업을 선정·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응답자 중 434명(86.8%)이 치유관광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고, 치유관광에 대한 관심도도 363명(72.6%)이 매우 높거나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치유관광하면 떠오르는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281명(56.2%)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 치유관광에 대한 방문의향도 326명(65.3%)이 ‘매우 방문하고 싶다’ 또는 ‘방문하고 싶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강원도 내에서 치유관광 프로그램 체험시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태백·정선 등 고원지역이 198명(3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동해안 지역을 선택한 응답자가 172명(32.4%)이었다. 강원도는 치유관광의 이미지와 밀접한 지역에 대한 설문 질문에서 두 번째로 꼽힌 제주도에 비해, 교통 및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좋으므로 자연치유관광에 더 유리한 입지조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어느 지역에서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 에이전시와 협력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와 상호협력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09년 양구군에서 실시한 양구아토피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자치단체 간 협력(양구군 보건소의 건강도시팀과 서대문구 보건소의 건강도시팀 간의 업무 협력사례), 자치단체와 대학연구소(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 및 대학병원(원주기독병원 피부과 및 호흡기알레르기내과)과의 협력이 이루어진 모범적인 사례라 하겠다(남은우 외, 2009).

응답자들은 의료관광을 치료목적에 비중을 두기 보다는 여가활용 및 심신 재충전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치유관광 방문목적은 ‘산림산책 등 레저’ 또는 ‘스트레스 해소 등 재충전’이라는 응답이 348명(69.6%)인데 비하여, 비만 등 성인병질환 치유는 74명(14.8%)에 불과했다. 또한 치유관광 중 이용하고 싶은 시설은 스파시설이 195명(25.5%)으로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연치유관광 프로그램으로는 온천요법(243명, 34.2%)과 산림요법(224명, 31.5%)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숙박시설이나 검진 및 의료의 이용보다는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스파나 맨발지압, 산책로 등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자치단체에서 건강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발지압 시설 조성, 산책로 조성, 자전거 도로 조성 등의 건강증진 시설이 의료관광 관련 시설이나 생태관광 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평균 79.8점으로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응답자의 46.6%가 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질병의 종류로는 고혈압(129명, 49.8%), 고지혈증(43명, 16.6%), 비만(39명, 15.1%)순으로서 불건강한 생활습관에 기인하는 질병이 많아, 건강도시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조성중인 건강도시 시설이 의료관광 시설로도 이용가능함을 시사한다. 강원도 지역 환자 유치에 유리한 알레르기성 비염과 아토피

피 피부염, 천식 환자의 경우는 이들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02년 552만 명에서 2008년에는 759만 명으로 202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환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target)으로 한 사업이 사업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도에서는 이들 질환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와 건강인 모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치유관광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며, 약물로 쉽게 치료하기 힘든 생활습관질환 및 환경성질환 환자의 증상완화와 건강인을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 레저를 중심으로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강원도 지역의 의료관광은 환경성질환과 호흡기 질환, 생활습관병을 완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양구와 같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강원도 지역의 의료관광 사업 개발시, 치유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작업과 레저활동과 연계하는 사업 모형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응답자들로부터 치유관광프로그램에서 중요시하는 사항의 1순위가 확실한 치유효과라는 응답이 274명(54.8%)으로 절반을 넘었고, 다음으로 레저시설 및 관광지와의 연계성(89명, 17.8%)과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52명, 10.4%)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천요법은 온천별 성분 분석과 효능에 대한 임상연구와 함께, 관광객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내 온천을 성분과 효능에 따라 그룹화·목록화한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관광 사업의 사업 전후의 서비스 효과를 가급적 과학화 하고 치유효과의 가시화를 위한 회원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통하여 치유관광 참여를 일회성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삼림욕의 경우, 보다 치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삼림욕이 아닌 보다 과학적인 트레킹 코스를 개발토록 한다. 독일의 경우, 크나이프(Kneipp)요법의 발상지로 이것은 수치료, 운동치료, 생약치료, 영양요법, 심신요법으로 구성되어 그 운영과 연구가 활발하다(조인스, 2010.1.21). 또한 이것은 독일의 사회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 크나이프보양지의 산림산책코스는 크나이프의 사연맹과 산림전문가가 조사설계를 시행하였고, 보양지에는 의사가 왕진 상근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인솔 하에 질병의 종류와 대상에 맞게 진행된다(유리화, 2009.2). 일본은 2004년부터 산림종합연구소에서 산림세라피를 국가적프로젝트로 연구 중이며 전국에서 지자체 신청과 실험에 의해 산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산림청 홈페이지).

이번 조사 결과, 강원도 지역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는 비교적 저렴하고 가을철 단기간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연치유관광 프로그램 참여시 머무를 기간에 대하여 2-3일이라는 응답이 283명(56.6%)으로 절반이 넘었고, 방문할 때, 원하는 동행인으로는 가족(389명, 77.8%)이 대부분으로서 이러한 공통 사항을 충족시키는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특히, 치유관광 지불 비용은 적은 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의료관광사업을 개발할 시에는 프로그램의 가격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유도하고, 계절별·기간별·참여구성원별 맞춤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의료관광 선호 지역 조사에서 일본인이나 일본 거주 한국교포들은 강원도를 세 번째로 선호하는 지역으로 들고 있어(남은우 외, 2006), 위와 같은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진다면 강원도로의 환자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별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인력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력의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인력은 기존인력의 활용 및 재교육 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지역인력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강원의료관광센터, 도내 대학교 및 시도의 평생교육원, 전문 인력 대상 교육, 의료관광사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져야 하고, 의료관광 및 건강증진 분야 신사업 개발 등의 교육이 이루어 져야겠다. 교육과정은 의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이론에 대한 기본 교육과 외국어 교육 및 고객의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IT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교육방법은 강의, 세미나, 현장실습에 의하도록 한다. 양성된 인력은 도내 의료관광 관련 분야에 취업을 알선함과 동시에, 도내 취업에만 국한 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강원도의 온천 및 산림을 이용한 의료관광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천요법사와 산림치료사 및 숲해설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다양한 의료관광 정책 개발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강원도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을 의료관광의 한 형태로 보고, 만성 질환자 및 건강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수요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목적을

최은희 외 : 강원도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 자연자원을 이용한 치유관광 중심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및 광역 도시를 중심으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강원도를 치유관광지역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제주도 선호 하였다. 강원도의 의료관광 목적에 대하여는 치료목적 보다는 여가활용 및 심신 재충전으로의 활용 비중이 높았다. 또한, 비교적 저렴하고 가을철 단기간 가족단위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았다. 따라서 강원도지역의 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 및 목표 집단, 계절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유연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지역인력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관광 사업의 과학화를 위해 치유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 작업과 건강도시사업과 의료와 레저를 연계하는 새로운 의료관광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cknowledgements

본 논문은 강원발전연구원의 2009년도 정책과제로 수행된 「강원광역경제권 의료관광 인력양성 방안」의 일부 내용을 포함함을 밝히며, 강원발전연구원의 재정적·학술적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참 고 문 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www.tour.go.kr/stat/st_main_frm.asp
- 국민건강관리공단(2008). 2008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분석
- 김세천, 한윤희, 박경옥, 오현경(2008). 자연휴양림 산림치유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2(4): 1-8
- 김인순, 강병근(2005). 보양온천을 중심으로 한 수치료시설의 비교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1(9): 11-19
- 남은우, 진기남 외(2006), 의료관광 : 일본 해외환자 유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보고서, 원주
- 남은우, 최라현(2009), 보건교육사가 실시한 아토피 캠프와 그 성과,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서울

- 보건복지부뉴스(2010.3.29). 건강검진 수검자 3명중 1명 비만
- 보건복지부뉴스(2005.3.14). 매년 50여만 명씩 당뇨병 증가
- 유리화(2009). 선진국의 산림치유 효과 활용사례. 산림지.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청 홈페이지. 숲에 On, <http://www.san.go.kr/main/index.action#>.
- 조인스(2010.1.25). 숲이 내뿜는 피톤치드 고혈압·천식에 효과
- 아시아경제(2010.5.5). 편백나무 숲에서 아토피 치유의 시작을
- 양구군. 연세대학교 건강도시연구센터(2009). 아토피체험승리캠프 운영결과보고서
- 양구군.연세대학교 원주의료원(2010), 연세-양구 의원 설립에 관한 양해 각서
- 제주의 소리(2010.2.23). 제주를 '자연치유의 메카'로 만들자
- 지경배(2008). 강원도 산림치유기지 조성방안 연구. 강원발전연구원
- 한국관광공사(2009).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실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고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결과보고서
- 고성해양심층수, <http://www.thalassotherapy.kr>
- 금진온천, <http://www.kurehouse.com>
- 숲채원, <http://www.soop21.kr>
- 힐리언스 선마을, <http://www.healience.com>
- Goodrich JN & Gooddrich, GE(1987). Health-care tourism: An exploratory
study. *Tourism Management*, 8(3): 217-222
- Hall CM(1992). *Adventure, Sport and Health Tourism*. Belhaven Press,
London, 141-158
- Medilik S(1996). *Dictionary of travel, tourism and hospitality*. British library
cataloguing in publication data. 125
- Mueller H & Kaufmann E(2001). Wellness tourism: Market analysis of a
special health tourism segment and implications for the hotel industry.
Journal of Vacation Marketing, 7(5): 5-17